한국일보 THE KOREA TIMES

시카고하상한국학교 강지흔양 최우수상

2017-신문명 기자

댓글..

▶ 재외동포 어린이 한국어 그림일기대회

강지흔 6학년

12월 9일 토요일 날씨: 흐림, 눈

제목: 한국학교의 역사시간

나는 한국학교에 수업시간 중에서 가장 재밌었던 시간은 역사시간 이였다. 한국의 역사는 미국의 역사보다 몇배는 길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줄줄이 이어졌다 세종대왕, 이순신, 유관순, 안중근, 한국의 위인들의 이야기를 배울때 마다 영화 한편이 머리속에 그려지는 것 같았다. 한국학교가 "한글학교"가 아닌 이유는 한글만 배우는게 아니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도 배우는 곳이어서 그렇다. 한글을 배우는 만큼 한국의 역사를 까먹지 않고 한국이 어떻게 지금의 한국이 되었는지, 어떤 위인들이 우리 나라를 지켜냈는지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 한국의 위인들 한명 한명 배울때 마다 우리의 지금 삶이 그냥 주워진게 아니고 우리 조상님들이 지켜낸 소중한 삶이라는 것을 알게되었다.

한국의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이 주최한 '제1회 재외동포 어린이 한국어 그림일기대회'에서 시카고하상한국학교에 재학중인 강지흔(트윈그로브스중학교 6학년)양이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재단은 지난 2001년부터 재외한인교육에 대한 전 사회적 관심 제고와 재원 확대에 힘쓰고 있으며 한국어, 한국역사, 한국문화 교육을 장려하기 위해 이번 대회를 열었다. 올해 첫 대회에는 전세계 재외동포 어린이 총 213명이 출품했으며 강양 외에도 시카고에서는 시카고하상한국학교 고수(4학년)군이 장려상을 받았다. 이밖에 입상자는 ▲우수상: 로드아일랜드한국학교 김서연(5학년), 호치민시 한국국제학교 변아린(2학년), 본한글학교 파울(4학년) ▲장려상: 벅스카운티한국학교 권하나(3학년), 사이타마한글학교 김한결(6학년), 남부뉴저지통합한국학교 신효린(5학년) 등이다. 심사기준은 한국어 공부를 잘 하고 있는지, 한국 역사의 이해 정도, 한국 역사 공부를 통해 한국 문화의 관심과 사랑을 글과 그림으로 얼마나 잘 표현했는 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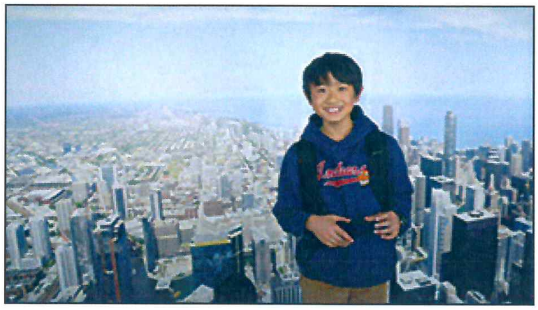
'한국학교의 역사시간'이라는 주제로 그림일기를 출품한 강양은 "한국학교가 '한글학교'가 아닌 이유는 한글만 배우는 게 아니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도 배우는 곳이어서 그렇다... 한국의 위인들 한명 한명 배울 때마다 지금 삶이 그냥 주어진게 아니고 우리 조상님들이 지켜낸 소중한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표현했다. 강양은 "7살 때 시카고로 이민을 왔는데, 한국어를 더 잘하고 한국 역사도 배우기 위해 한국학교를 다녔다. 잘 모르던 한국역사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 소중하고 즐겁다. 큰 상을 받게 돼 기쁘고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신은영 기자>

제1회 재외동포 어린이 한국어 그림일기 대회

서재우 군 인기상 수상

2018년 01월 11일 (목) 07:23:31 weeklyfocus weeklyfocus@focuscolorado.net



콜로라도 통합한국학교 무궁화 3반 서재우 군(10세, 4학년)이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에서 실시한 제1회 재외동포 어린이 그림일기 대회에서 인기상을 수상했다. 재외동포 어린이들의 한국어와 한국문화 학습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2017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전 세계 재외동포 어린이들 총 213명이 응모하여 최우수상 1명, 우수상 3명, 장려상 4명, 특별상 1명, 인기상 3명을 선정했으며,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자상이 주어졌다. 재단 측은 우리 동포 어린이들이 한국어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한국어 공부를 통해 우리의 역사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우리 역사공부를 통해 우리 문화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중점을 두고 작품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초등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한 이번 대회에 콜로라도 통합학교에서는 41명의 학생들이 응모했는데, 이번 대회를 위해 특별히 일기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계속해서 일기쓰기를 해온 것 중에 일부를 추려서 제출했다고 한다. 인기상을 수상한 서재우 군은 "한글 학교에서 시를 배우면서 제가 좋아하는 뿌셔뿌셔로 시를 썼는데 이 시로 인기상까지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면서 "친구들과 뿌셔뿌셔를 나눠먹을 때가 제일 행복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시를 쓸 수 있게 가르쳐주신 장문선 선생님께 감사드린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 주간포커스(http://www.focuscolorado.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재외동포 어린이 그림일기 대회 수상자 시상식 열려 목록보기

2018년 03월 22일 (목) 07:37:43 weeklyfocus weeklyfocus@focuscolorado.net

지난 해 12월 재단법인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이 주최한 '제1회 재외동포 어린이 그림일기 대회'에서 인기상을 수상한 서재우 군과 참가자 41명에 대한 시상식이 3월 10일 콜로라도 통합한국학교에서 열렸다.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은 한국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해외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해외의 한국학교와 한글학교에 교과서와 교재를 제공하고 있는데, 재외 동포 어린이들의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학습을 장려하기 위해 이번 대회를 마련했다. 전 세계에서 총 213명의 어린이들이 참가하여 우열을 가리기 힘든 경쟁을 벌였다. 이에 재단 측은 시상식 발표를 연기하고, 계획에 없던 특별상과 인기상까지 추가해서 시상했다. 콜로라도 통합학교에서는 평소 해오던 일기쓰기 중에서 작품을 골라 41명의 학생들이 참가해 전원이 참가상을 받았고, 서재우 군은 '뿌셔뿌셔'라는 제목으로 쓴 동시로 인기상을 받았다.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은 올해로 16회째 열리는 재외 한국어교육자 국제학술대회에 본 대회의 출품작들을 전시할 예정이다.

weeklyfocus의 다른기사 보기